

건축문화 **사랑**

Vol.064 10. MARCH 2015
<http://gjkira.kira.or.kr>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

건축문화 **사랑** 을 스마트폰에서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 코드로 접속하신 후, 상단 '건축
 문화사랑' 을 클릭하시고 홈페이지에서 월별
 PDF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구독 가능합니다.



광주 · 전남 · 전북 건축사회

News 2015.03

064호

GWANGJU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5 T 062.521.0025 F 528.0026

전라남도건축사회 제28대 회장후보



건축사사무소 창조
조연준 건축사
 순천공업고등학교 졸업
 여수대학교 졸업
 전남대학교 대학원 졸업
 전남건축사회 감사 역임
 여수지역 건축사회회장 역임



다산 건축사사무소
박용묵 건축사
 전남공업고등학교 졸업
 초당대학교 졸업
 전남대학교 대학원 졸업
 전남건축사회 감사 역임
 목포지역 건축사회회장 역임

선거일시 : 2015. 3. 16 (월) 오후1시 30분 / 선거장소 : 순천시 에코그라운드관광호텔



인터뷰_사람&issue
 전남 무안지역 건축사회장_
 건축사사무소 정원 정정진 건축사

도시계획에서 건축사의 역할 2부
 좋은 도시의 요건은 무엇인가_ 신재욱 (관련 지면 6면)

시론 02
 자연, 한옥, 소통 그리고 건축사_ 국원식

작품소개 03
 제15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공공부문 금상_ 새만금 주변공원 조성공사

설계경기 04 ~ 05
 빛고을공예창작촌 공방확충공사 설계공모 / 팔마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설계용역

특별연재기고 06
 도시계획에서 건축사의 역할 2부_ 신재욱

사람 & issue 07
 전남 무안지역 건축사회장 정정진 건축사와의 만남

NEWS 08 ~ 10
 광주건축사회, 지역 건축전공 우수 학생 양성을 위한 국제 행사 참가 지원 / 제4회 대한민국 한옥건축박람회
 대한건축사협회 제31대 조총기회장 취임 / 광주건축사회, 신입회원 및 2014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자와의 간담회

제15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공공부문 금상_ 새만금 주변공원 조성공사 참하늘 건축사사무소 반진호 건축사



빛고을공예창작촌 공방확충공사 설계공모 당선작_ (주)에이엠지그룹 건축사사무소 정명철 건축사



팔마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설계용역 당선작_ (주)디아이지 건축사사무소 오금열, 길종일 건축사



자연, 한옥, 소통 그리고 건축사



국원식 회장
전라남도건축사회
건축사사무소 한신

한 때는 건축사의 자존심이 존중받았던 시절도 있었으나, 건축설계업계 또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생존을 위해 하루하루를 버텨나가야 하는 역경에 처해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전통한옥의 진정한 의미를 되짚어보아야 한다. 즉, 주위에 만연한 경쟁의식과 일등주의를 경계함과 동시에, 협력을 통한 공생과 소통을 통한 상생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삭막한 도시문화에 대한 반성

건축 혹은 건축물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자체이자, 문화와 소통의 언어이면서, 인류 진화의 과정과 미래의 모습이 담겨있는 산물이라 생각한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국민의 대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지금의 아파트라는 건축물은 어떠한 건축물일까? 개인의 사생활이 보호되는 장점은 있겠지만, 현관문만 잠그면 나만의 세상이 되어버리는 폐쇄적인 공간구조. 토지의 이용률을 높일 수는 있겠지만, 자연의 섭리에 역행하며 끝없이 높아져 가는 아찔한 고층화. 시공성과 경제성은 확보할 수 있겠지만, 유사하게 반복되는 평면 속에 인간의 삶을 짜 맞춰야 하는 비인간적인 행태의 통일. 편리성은 다소 증대되겠지만, 중소규모의 경제주체를 고사시키는 집단화 또는 규모화.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지만, 삶의 질보다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해 버린 경제논리의 횡포.

그러한 요소들이 모이고 쌓여서 세대와 이웃 그리고 계층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는 아파트문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다. 그리고 그러한 영향이 심화되어 현시대를 인간성 상실의 시대라 하지 않나 싶다. 그렇게 정리를 해보니,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건설사들의 탓하기에 앞서, 것처럼 삭막한 도시문화를 만드는데 우리 건축사들이 일정부분 동조했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착잡하다.

전통한옥에 배어있는 소통의 지혜

되돌아보면 우리 조상들은 자연의 양면성 즉, 위험하고 위협적이면서도 유익하고 고마운 존재임을 일찍이 깨달았던 것 같다. 집을 지을 때도 자연에서 얻은 나무와 흙을 주재료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자연에 순응하고 조화를 추구하며 소통하고자 했던 흔적들이 곳곳에서 엿보이니 말이다. 건축을 통해 삶의 공간을 창출할 때도 안과 밖, 방과 마당, 이쪽과 저쪽이 전혀 다른 둘이 아니라, 서로 연계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의 전통한옥은 그러한 노력을 통해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 인간이 자연의 일부인 것처럼, 한옥에서는 푸근한 고향의 정과 평안한 어머니의 품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또한 인간이 자연의 범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가족과 이웃 간에 따스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열린 공간이기 때문이다.

한옥은 한복처럼 현재의 일상과는 거리가 있을지언정 우리가 보존해야 할 전통이자 문화다. 우리의 유전인자 속에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어서 언제 접하더라도 친숙함과 평온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유명한 거장의 작품이 아니어도 되고, 오랜 세월을 견뎌온 집이 아니라도 되며, 겉모습이 화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저 나무와 흙으로 지은 전통한옥이면 충분하다. 그곳에 머물다보면 도시공간에서 느끼는 심리적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주장도 많다. 또한 그러한 경험을 통

해 한옥은 결코 사람을 압도하지 않고 사람을 슬며시 감싸안아주는 것 같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까닭은 자연에 순응하며 받아들이는 구조와 재료, 자연과의 조화를 고려한 장소와 규모 및 형태, 인간에게 익숙한 휴먼스케일의 강조, 계절과 기후를 고려한 기능성과 융통성 등이 주된 요인일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요인들은 외부와 단절되지 않은 낮은 담장, 고개만 들면 하늘이 보이는 마당, 시선은 차단되면서도 빛과 소리는 넘나들 수 있는 창문, 시원한 바람과 따뜻한 햇볕, 온돌과 마루 등의 형태로 현실화되어 나타나 있다. 결국, 편안함과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우리의 한옥은 나만을 생각하는 개인주의가 생길 수 없는 집이며, 동시에 자연과의 소통 및 사람과의 소통이 철저히 고려된 조상들의 역작인 것이다.

회원과 회장 및 협회 상호간의 소통이 필요하다.

올해 올미년은 대한건축사협회 창립 50주년이 되는 해다. 따라서 그 의미를 더하기 위해서는 지난 반세기를 되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과연 우리 건축사들이 사회적 책무를 다했는지, 전문가로서의 위상은 제대로 정립하였는지에 대해 자문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부족함이 있었다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이 된다면, 올해를 건축사 위상제고의 원년으로 삼아 이제부터라도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한다.

그렇지만 계기와 기회도 마련되었다. 협회 역사상 처음으로 직선제로 치러진 제31대 대한건축사협회장 선거에서 80.4%라는 놀라운 투표율이 나온 것이다. 이처럼 높은 투표율은, 많은 회원들이 협회와의 소통을 절실히 원한다는 것 반증하는 것이고, 협회에 거는 기대도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따라서 취임하신 회장님과 새롭게 구성된 집행부는 회원들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게 고민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지금까지의 운영방식과 업무행태에서 벗어날 각오도 해야 한다. 그리고 회원들 또한 지금까지 해왔던 협회에 대한 무관심, 협회에서 다 알아서 하겠지 하는 의태심, 내가 아니어도 다른 회원이 대신 해줄 것이라는 이기심 등은 버려야 한다.

그리하여 회장이 회원을 위하고, 회원이 협회를 위하며, 협회가 회장을 뒷바라지 해주다면 우리는 충분히 새로운 시대를 개척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한 환경을 바탕으로 우리 건축사들이 전문인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할 때, 바람직한 건축문화도 창달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고, 더불어 요즘 같은 어려운 경제상황 짚은 너끈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도약을 위해 전통한옥에 담긴 소통과 공생 및 상생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 보고, 우리 건축사의 정체성과 자긍심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하길 기대한다. ☐

(주)마이다스아이티 2014 ICT Innovation 대통령상 수상



마이다스아이티가 2014년을 빛낸
대한민국 혁신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열정과 정진으로
세계 공학 기술 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마이다스아이티는 설계·해석분야의 핵심 기술인 컴퓨터 그래픽 기반의 시뮬레이션 기술과 최적화 설계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하여 국내 기술자립을 실현하고 특히 건설분야 공학용 SW 세계 1위로 전세계 110여 개국에 수출해 국가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한 바를 인정 받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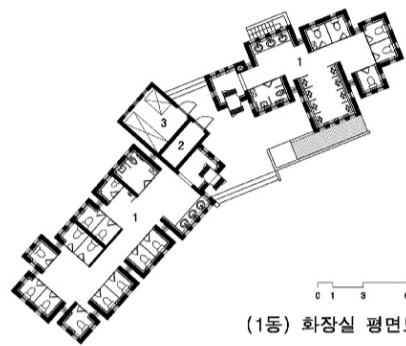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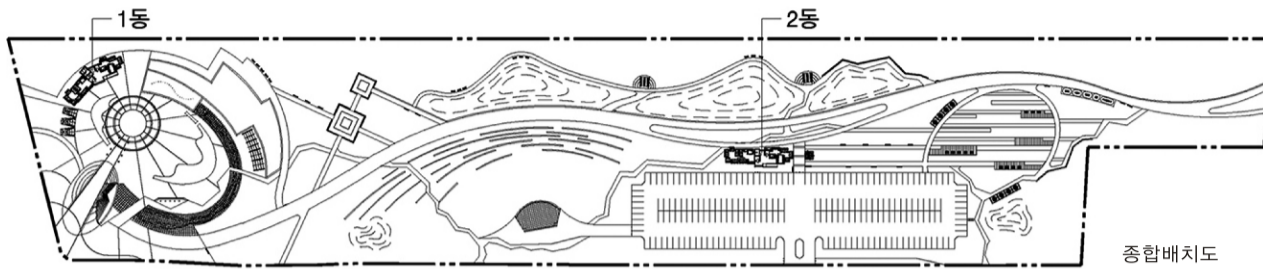


지난 2014년 전라북도에서는 건축문화의 질적인 향상과 아름다운 건축물을 확산하고 나아가 건축문화의 미래를 이끌어 갈 건축인 발굴을 위하여 제15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을 개최하였다.

제15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공공부문 금 상 새만금 주변 공원 조성공사

반진호 건축사
참하늘 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비봉동동 36
주 용 도 : 공중 화장실
대지면적 : 48,993.30㎡
건축면적 : 279.30㎡

연 면 적 : 279.30㎡
규 모 : 지상 1층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주요마감재 : 노출콘크리트, 합성목재로그사이딩판재재

새만금 주변의 공원조성공사의 영역일환으로서 자연공간과 도시공간과의 기능적, 경관적 조화를 통한 자연생태계 조성 및 도시의 기능성 제고 이용형태, 공간조성 등을 고려하여 성격별, 기능별 구분에 따른 설계 및 배치를 하여 공원과의 유기적으로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도록 하여 각각의 시설물들이 하나가 되고자 노력 하였으며, 큐브를 형상화한 입체적인 사각형의 변화를 최대한 활용하여 노출콘크리트와 목재의 재료적인 특성을 조화롭게 디자인 하여 파노라마 처럼 다양한 메스의 변화에 단조롭지 않으면서 요철부분의 그림자와 파스텔톤 색상유리의 빛의 변화에 재미를 유발하며 상징적인 화장실로서 계획함.



공사의 첫 단추, 기초공사 반석기초이앤씨에서 끼우세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를 끼울 곳이 없습니다
공사의 첫 단추인 기초공사가 부실하면
건축물의 결과도 부실해집니다
공사의 첫 단추를 반석기초이앤씨에서 끼우는
시공사가 늘어나는 이유입니다

BS New, Different, Better
반석기초이앤씨(주)



4_ 설계경기

광주광역시 남구청은 양과동에 위치한 빛고을공예창작촌에 공동체개념의 공방 집적화로 공예산업의 발전을 추구하고 상징적이고 예술성 있는 창의적 작품을 선정하여 미래지향적인 건축문화 발전을 도모하고자 설계공모를 진행하였다.

빛고을공예창작촌 공방확충공사 설계공모

위 치 : 광주광역시 남구 포충로 937(양과동) 용 적 륜 : 95.46%
 대지면적 : 12,638㎡ 규 모 : 지상2층
 건축면적 : 1,979.24㎡ 구 조 : 철골조,경량철골조,조적조
 연 면 적 : 4,061.72㎡ 마 감 : 숙빈 콘크리트블록,THK24복층유리
 건 폐 율 : 46.51% 주차대수 : 85대(장애인4대/서비스5대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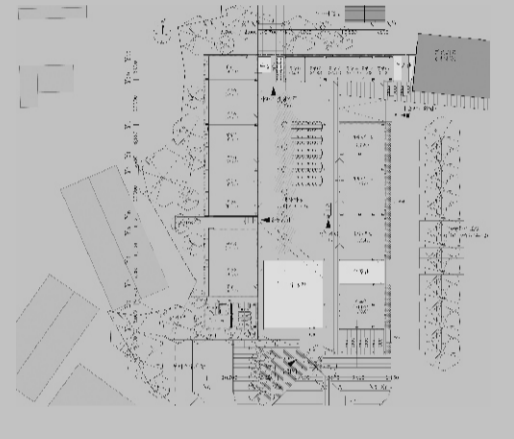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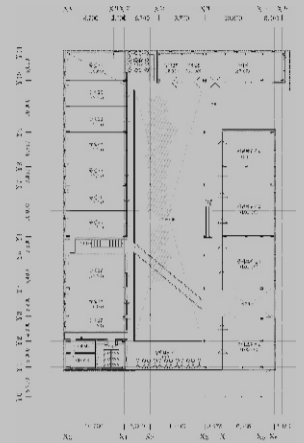


발주처 : 광주광역시 남구 / 설계공모방식 : 일반공개공모

당선작 : (주)에이엠지그룹 건축사사무소 정명철 건축사
 우수작 : 백두 건축사사무소 강연심, 박규상 건축사
 가 작 : (주)건축사사무소 이엘앤드자경재디자인그룹 정관성 건축사

당선작

정명철 건축사
 (주)에이엠지그룹 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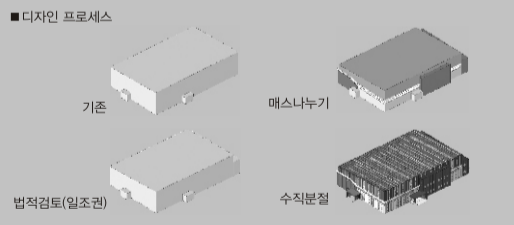


위 치 : 광주광역시 남구 포충로 937(양과동) 용 적 륜 : 48.27%
 대지면적 : 12,638㎡ 규 모 : 지상2층
 건축면적 : 2,353.33㎡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연 면 적 : 4,437.75㎡ 마 감 : 알루미늄쉬트 거열접기,칼복층유리
 건 폐 율 : 28.22% 주차대수 : 45대(장애인2대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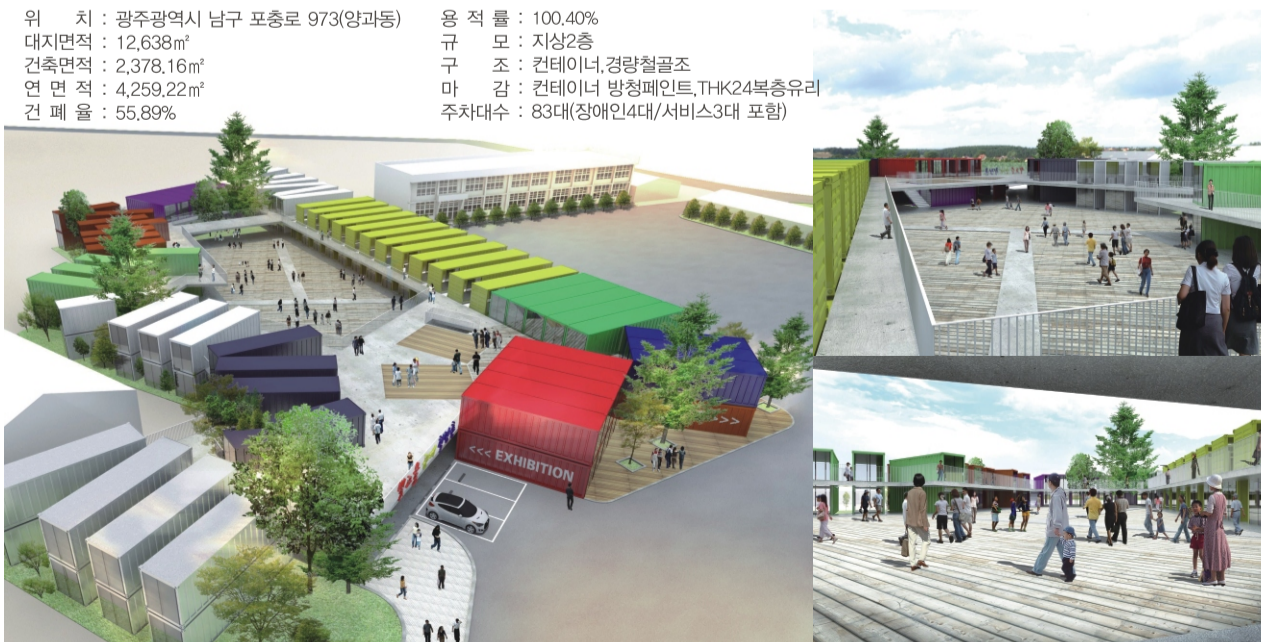


우수작

강연심, 박규상 건축사
 백두 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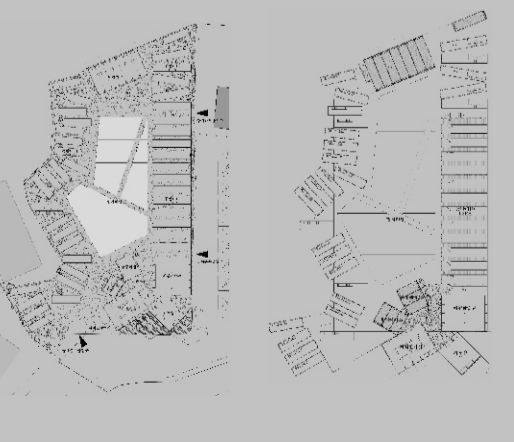


위 치 : 광주광역시 남구 포충로 973(양과동) 용 적 륜 : 100.40%
 대지면적 : 12,638㎡ 규 모 : 지상2층
 건축면적 : 2,378.16㎡ 구 조 : 컨테이너,경량철골조
 연 면 적 : 4,259.22㎡ 마 감 : 컨테이너 방청페인트,THK24복층유리
 건 폐 율 : 55.89% 주차대수 : 83대(장애인4대/서비스3대 포함)



가작

정관성 건축사
 (주)건축사사무소 이엘앤드자경재디자인그룹



순천시는 생활체육인의 증가로 기존 체육관으로 그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 팔마종합경기장 북측 명암지구에 체육관을 추가로 건립하기로 하고 시민들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을 통한 체육발전과 생활체육활성화 및 장애인을 위한 창의적이고 작품성을 갖춘 체육 시설 확충을 위하여 설계공모를 진행하였다.

팔마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설계공모

발주처: 전라남도 순천시 설계공모방식: 일반공개공모
 당선작 : (주)디자인 건축사사무소 오금열, 길종일 건축사
 우수작 : 레종 건축사사무소 최병률 건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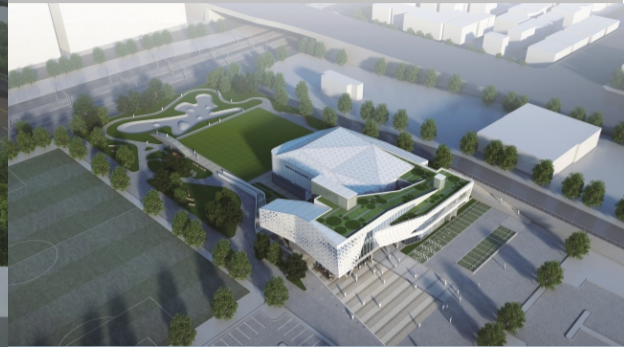
당선작은 심사에 제출된 자료를 제공받았고, 우수작은 다른 형식으로 재가공된 자료를 제공받은 까닭으로 서로 상이하게 편집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편집자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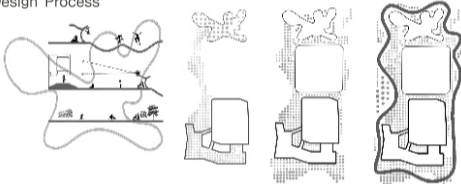
위 치 : 순천시 영향동 231번지 일원
 대지면적 : 10,000㎡
 건축면적 : 1,998.55㎡
 연 면 적 : 3,514.97㎡
 건 폐 율 : 19.99%
 용 적 율 : 32.93%
 규 모 : 지하1층, 지상3층
 구 조 : 철근콘크리트, 철골구조
 마 감 : AL 스위트판넬, AL 골강판, U-GLASS
 주차대수 : 24대

당선작

오금열, 길종일 건축사
 (주)디자인 건축사사무소



Design Process



계획의 시작
 팔마 국민체육센터는 순천시 생활체육인의 증가로 기존의 팔마종합운동장의 체육시설이 포화 상태에 있어 체육시설의 추가와 순천시민들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을 통한 체육발전을 목표로 계획되었으며, Barrier Free 개념을 바탕으로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의 따뜻한 정을 나누는 공간을 계획하고자 하였다.

외부공간계획 개념-Sport&Park (유연하게 흐르는 다양한 공간)
 국민체육센터에 맞게 질 구성원들에게 우리는 체육활동만의 기능이 아닌 다양한 공간들의 경험과 체험, 그리고 구성원들의 다양한 행위들을 복합적으로 연결시켜주는 길을 통해 단순히 동선을 연속적으로 유도하는 기능이 아닌 그 길을 거닐며 구성원들간의 우연한 만남에서 발생되어 어질 다양한 커뮤니티를 담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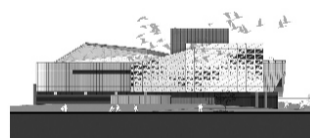
건축계획-Multiple Community Link
 시설이용에 있어 이용자의 편리성을 위해 기존 종합운동장과 연계성에 중점을 두고 계획에 임하였다. 중정을 중심으로 계획되어 쾌적한 열린 공간과 내, 외부 경계를 허무는 시각적 연계성, 그리고 중정의 벽체 일부를 이용한 Climbing 시설과 북측 콘볼 경기장과 연계된 가변형무대시설은 이용자에게 보다 풍부하고 다양한 공간감과 건축적 감흥 등을 제공해주는 공간의 융통성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국민체육센터는 체육시설영역과 문화시설영역으로 구분하여 체육시설은 대지 북남쪽에 배치하여 인접해 있는 체육시설(문벌 X-게임)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였고, 남동쪽으로 시설용 빈도수가 높은 문화시설을 배치하여 편리한 접근성과 종합운동장의 활력있는 풍경을 담고자 하였다.
 또한 체육센터의 파사드 디자인은 생태도시 순천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자연적 표현과 그 서정성을 담아내는 요소를 형상화 하였다. 순천시의 하늘을 자유롭게 무리지어 다니는 새들의 아름다운 군무, 순천만을 연상시키는 옥성정원 등 동적인 흐름의 파사드를 구현하였다.

Facade Design

생태도시 순천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자연적 표현과 그 서정성을 담아내는 요소를 형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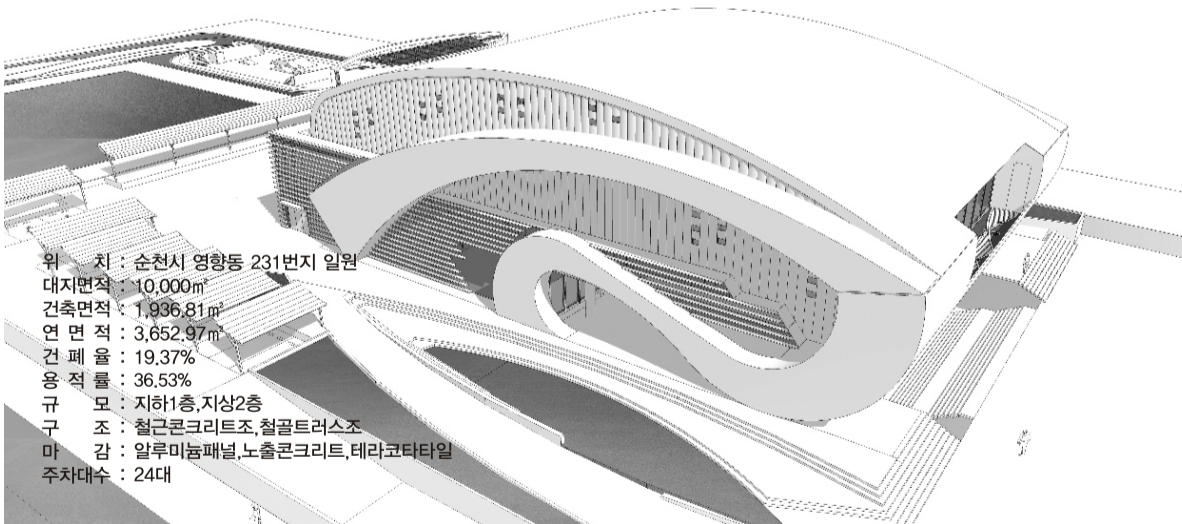


체육센터에서 일어날 다양한 이벤트를 담아낼 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차별과 불편함 없이 함께 조화를 이루며 지내길 기대하며 동적인 흐름의 입면을 구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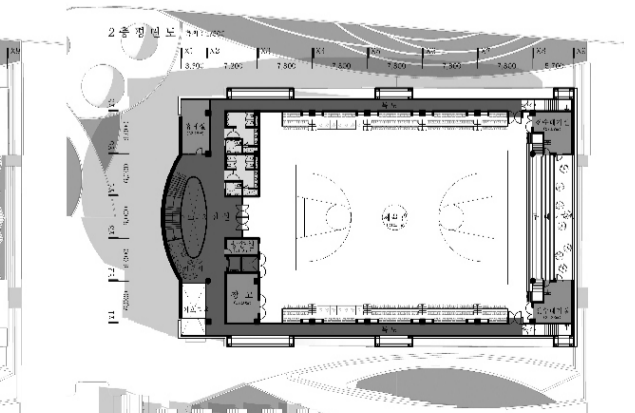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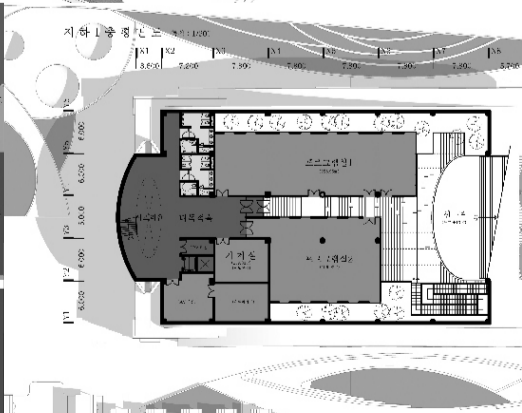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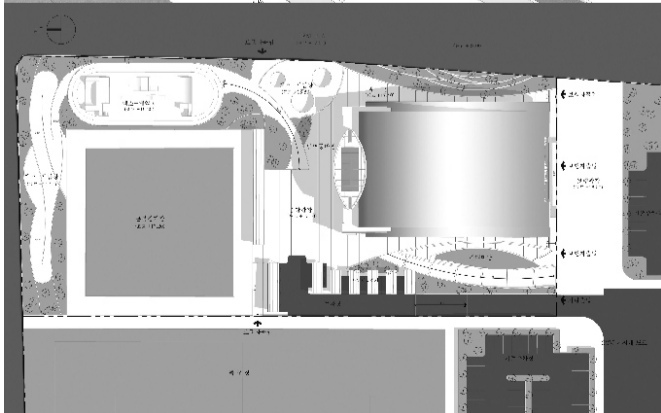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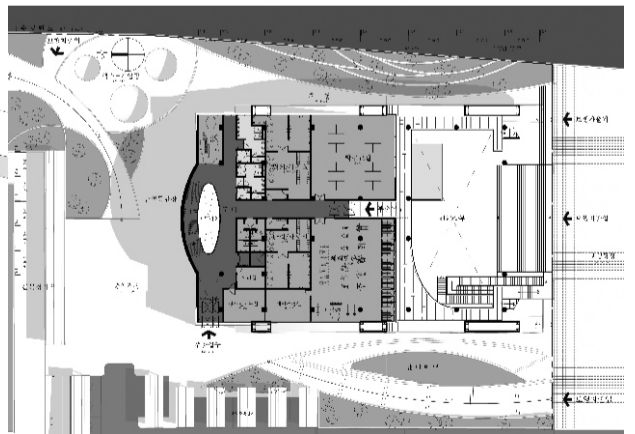


우수작

최병률 건축사
 레종 건축사사무소



위 치 : 순천시 영향동 231번지 일원
 대지면적 : 10,000㎡
 건축면적 : 1,936.81㎡
 연 면 적 : 3,652.97㎡
 건 폐 율 : 19.37%
 용 적 율 : 36.53%
 규 모 : 지하1층, 지상2층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철골트러스조
 마 감 : 알루미늄패널, 노출콘크리트, 테라코타타일
 주차대수 : 24대



도시계획에서 건축사의 역할-2부



신재욱 사무관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
건축사/도시계획기술사
지역 및 도시계획박사
newurban@korea.kr

>> 좋은 도시의 요건은 무엇인가

- 1부 : 건축사에게 도시계획의 의의 - 2015년 1월 게재
2부 : 좋은 도시의 요건은 무엇인가 - 2015년 2월 게재
3부 : 어떻게 만들어야 잘 만드는 도시인가? - 2015년 3월 예정
4부 : 누가 도시계획을 주도하는가 - 2015년 4월 예정

고성장시대의 종료와 함께 인구감소시대에 접어들면서 확장형 도시계획에서 건축적 기법을 강조하는 도시재생이 요구되면서 전통적 도시계획기법이 변화되고 있다. 따라서 도시계획 분야에서 건축사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 속에서 도시계획에 대한 건축사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건축사라면 매력있고 좋은 도시는 어떤 모습일까라는 질문을 한번쯤 해보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들 속에 진정한 도시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모습을 떠올리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시대가치의 변화속에 우리들의 가슴속에 품고 있는 도시상도 달라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돌이켜보면 도시로 인구가 이주하던 1980년대 도시계획 이슈는 개발 가능지를 얼마나 확보하고 가능지 개발에 대비하여 도로개설을 어느 시기에 얼마의 재원을 투자하는 내용을 담는게 주류였다. 고성장 시대의 도시계획은 도로나 상하수도 등 토목분야를 중심으로 평면적 계획으로 수립되면서 더 많은 공원, 더 많은 도로 등을 도시공간에 배치하는 것이 좋은 도시계획의 요건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과거와 같은 성장위주의 도시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어 새로운 도시계획이 요구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패러다임은 서구에서 오래전부터 일어나고 있다. 1780년대 영국은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주택난, 교통난, 식수대기 오염 등 도시문제가 발생하였고, 그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그 시대의 최고의 도시학자인 하워드(Ebenezer Howard) 선생이 전원도시 이론을 내놓았다. 하워드는 도시의 혼잡을 구제하려면 도시를 확장해서는 안되고 도시의 기능을 분산시켜야한다고 생각하였다. 도시 한가운데 인구 5만 8천명의 모도시를 중심으로 모 도시 주변에 인구 3만 2천명씩의 6개의 전원도시를 만들고 도시와 도시사이에는 도로나 철도로 연결하여 총 28만명의 도시를 만들자는 이론이다. 이것이 기준이 되어 우리나라는 분당, 일산 신도시가 만들게 되었고, 일본에서도 열광적으로 수용하여 철도회사들이 기차역 주변을 개발하면서 전원도시 운동을 적용하여 1920년경 도쿄와 오사카 근처의 조용한 시골마을에 주택단지를 많이 건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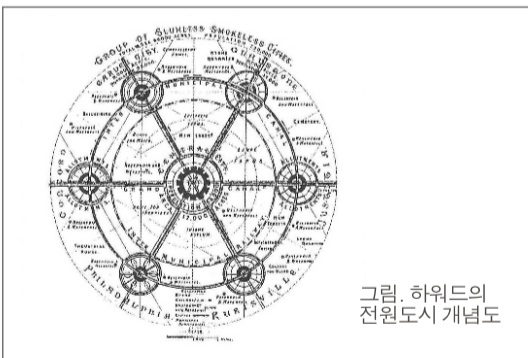


그림. 하워드의 전원도시 개념도

그러나 시대의 여건이 변화되어 전원도시와 같은 외곽확산보다 기존도시를 살리자는 뉴어바니즘(new urbanism)이라든가 어반빌리지(urban village) 그리고 압축도시(compact city)와 함께 다양한 계층이 계획 과정에 참여하자는 협력적 계획(collaborative planning) 등이 제시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공간의 질은 물론 삶의 질을 동시에 향상하고자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시점에 어떻게 우리들 가슴속에 품고 있는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고민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 좋은 도시의 요건을 중심으로 모색하여 보았다.

첫째, 서양적 사고체계가 아닌 한국인의 삶을 담을 수 있는 한국적 사고체계에서 계획을 접근하여야 하겠다.

서구적 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도시계획 개념에 의하면 의사결정자의 뜻과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하나의 기계같은 계획체계를 떠올리게 한다. 이에 반하여 한국의 사상은 인간을 위시한 이 세상 모든 존재를 소수 몇 사람의 의사에 의해 만들어진 피조물

로 보지 않고 다양성과 다면성의 원리가 있다. 도시공간을 구성함에 있어서 먼저 중심축을 상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토지를 분할하고 주요 기능을 배치하는 것은 동·서양의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축(axis)의 역할에 있어서는 동양도시에서는 정신적 상징성이 강조되었음에 비해 서양도시의 경우는 시각적 중요성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공간구성의 기법면에서 큰 차이를 나타낸다. 이처럼 서구적 사상과 한국적 사상이 다른데도 우리의 도시계획은 서구적 도시계획에 익숙해 있고 그러한 도시계획이 만든 체계안에서 적응되고 있는 실정이다.

필자도 도시계획을 처음 공부하던 시절에 이런 점을 깨닫지 못하고 서구의 도시계획을 정석(定石)으로 여기고 실무에 적용하였던 시절이 있었다. 행정중심복합도시(현 세종시)의 마스터플랜 수립 초창기 시절에는 도시계획의 이론과 실체가 일찍부터 발달한 영국이나 미국의 이론인 전원도시(garden city), 도시미화운동(city beautiful movement) 등을 공부하며 그것을 도시계획 실무에 접목하기 위하여 시도한 적이 있다. 그리고 매뉴얼에서 규정한 공식에 대입하여 청사진형 도시계획에 열중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면서도 우리 실정에 맞는 계획을 만들기 위하여 고민한 적도 있다. 다행히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계획성과를 보면 도시 전체를 다층적인 구조를 가진 생활권으로 분리하여 도시조직을 마련하였고 커뮤니티와 생태적 측면에서 적용하여 나름대로 한국적인 도시계획을 도입하였다고 자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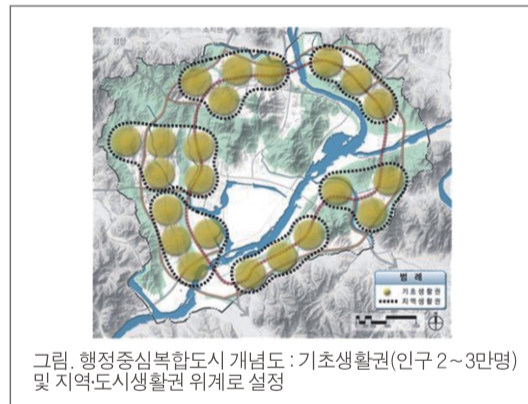


그림.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념도 : 기초생활권(인구 2~3만명) 및 지역도시생활권 위계로 설정

이러한 실무과정을 통하여 한국적 도시사상은 배타적이지 아니하고 공존하면서도 나름대로의 사회적, 문화적, 공간적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한국적인 도시계획의 키워드 중에 하나는 공동체(커뮤니티)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가의 역할은 시민속에 잠재되어 요구하고 있는 의식을 끄집어내어 도면으로 언어화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인간의 생활을 다루고 인간을 담은 건축물을 설계하고 있는 건축사는 현 시대의 도시계획가이자 도시기획자라고 하겠다.

둘째, 우리는 21세기 환경에 살면서 아직도 20세기 계획 시스템에 머물고 있지 않은지 반성해 본다.

근대 도시계획은 인구의 과도한 집중으로 발생한 도시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생산원리를 기반으로 효율성과 합리화, 규모의 성장을 추구하였다. 그 시기의 도시계획을 '20세기 도시계획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지구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국제적인 도시 간 경쟁과 함께 도시의 구조적 전환이 크게 나타나는 '21세기 도시계획 시스템'으로 변화되었다.

20세기 도시계획은 도시의 물리적 환경을 개발하고 관리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21세기에 접어들어 지방자치제와 시민사회가 활성화되어 환경·복지

·문화 분야 등이 대두되면서 기존 도시계획으로는 목표나 운용 면에서 커다란 도전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기득권 세력의 저항으로 아직까지 표면화되고 있지 않지만, 도시계획에서 적극적인 수용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도입하지 않고 있어 18세기 영국의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문제처럼 지금 도시계획은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예로 20세기 산업화에 따라 토지의 용도를 주거·상업·공업지역등으로 구분하게 되었는데 우리는 이러한 조닝(Zoning) 체계를 당연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도심지역은 공동화 현상이, 교외지역에서는 소득수준에 따른 계층분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도시문제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서구에서 뉴어바니즘 운동 등을 통해 주거·상업·업무기능 등을 한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근린주구 또는 직주균형 등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그들은 다양한 계층이 소통할 수 있는 열린공간(open space)을 곳곳에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교통수단의 다양화를 통하여 보행자 중심의 도시설계 운동이 도시계획에 반영되고 있다. 이처럼 21세기에는 기존도시계획에 대한 반성을 통해 도시를 재구성하고 인간과 환경 중심의 공간으로 되살리는 접근방식이 도시계획에 도입되어야 한다. 특히 이웃관계 회복을 통한 커뮤니티(지역공동체) 활성화가 중요하다.

이러한 변화시기에 입체적인 공간 감각을 가지고 있는 건축사에게 도시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본다. 필자는 21세기 건축사를 도시기획자라고 하고 싶다. 그건 건축사만큼 건축설계 과정을 통하여 인간, 공공성, 재미, 새로움 등에 대한 프로그램을 고민한 계층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크고 작은 구성원들 사이의 갈등을 푸는 도시기획자의 학습을 하였기 때문이다. 다양한 삶들이 서로 얽히고 의지하고 때로는 경쟁하면서 그곳의 장소성을 만드는 21세기 도시계획의 중심에 건축사가 서있기를 기원한다.

셋째, 도시재생형 도시계획에서는 입체적 공간 감각을 요구하고 있다.

변화하는 시대조류에 따라 앞으로 도시는 장소적 특성을 지니고 도시마다 생태적, 문화적, 사회경제적 이질성과 특성이 존재하는 도시가 좋은 도시라고 한다. 전국 어느 도시를 가든지 똑같은 이미지의 모더니즘 시대의 도시에서, 앞으로는 특성이 존재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도시를 요구하고 있다. 일례로 획일적이고 단순한 규제가 아닌 지역별 특징을 활용하는 토지이용 계획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유연한 관리방향이 강화되고 있다. 최근 「건축법」에서는 '특별건축구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새로이 도입한 것이 좋은 예일 것이다.

이러한 제도 개선의 근원은 도시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도시계획과 건축계획은 더욱 불가분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와 같은 확장형 도시계획 체계에서는 건축사의 참여가 많지 않은 실정이었다. 그러다보니 건축사는 건축계획을 할 때 도시계획적 결정을 우리의 결정,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결정이라고 받아들이기보다 자신의 자유를 묶는 결정, 빠져나갈 수 있으면 빠져나가야 하는 결정으로 받아들이는 현실이었다.

이러한 시점에 도심재생이 도시계획의 주류가 됨에 따라 평면적 감각으로는 도시문제를 풀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도심재생 계획과정에서는 입체적 공간 감각이 있어야 하는데, 건축사는 어느 전문가보다 입체적 감각의 능력소유자라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시재생형 도시계획에서 건축사의 도시계획 분야로의 활발한 진입을 기대하여 본다.

<다음호에도 계속됩니다.>

전라남도 무안지역 건축사회 회장을 맡고 있는 정정진 건축사와의 만남

전남 목포지역에 소속되어 있던 무안지역 건축사회원들이 별도의 지역 건축사회를 신설했다. 지난해 12월 18일 무안지역 건축사회가 공식 승인되어 지역 건축사회로서 본격적인 단체 활동에 들어갔으며, 현재는 이에 따른 회원 정비와 제도 보완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이다. 지난 3월 4일 전남 무안에서 본지 편집위원들이 지역회장을 맡고 있는 정정진 건축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다음은 정정진 건축사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사진설명) 무안지역 건축사회 정정진 회장은 올해 초 무안군에 무안읍 청년회와 힘을 합쳐 농가주택 등을 신축하는 9세대를 선정, 무료로 설계를 지원하기로 했다.



전남 무안/건축사사무소 정정진 건축사

무안지역 건축사회가 개설하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현재 무안군 지역에 15개 건축사사무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들을 한 울타리로 묶어 무안군의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 할 목적으로 지역 건축사회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지역별로 5인 이상의 건축사가 활동하면 지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에 따라 목포지역에 소속되어 있던 장흥과 영암 등에서도 지역 건축사회가 개설되었습니다.

지역 건축사회가 개설된 후 나타난 효과에 대해...

무엇보다도 건축사의 위상이 달라졌습니다. 일례로 무안군 청에서 건축 관련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도를 정비할 경우 우리 건축사회와 협의를 함으로써 지역의 실정이 최대한 반영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 상호간의 유대가 강화되어 업무 의 질적 향상은 물론이고 덩핑수주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무안지역 건축사회회장으로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아직 머릿속에 그려진 큰 계획은 없습니다만 우리 회원들이 노력한 만큼의 설계비와 감리비를 받을 수 있도록 시장 질서를 정비하고, 건축사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타 사·도 건축사회에 버금가는 복지 제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외적으로 건축사들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남건축사회 총회에서 선출되는 3년 임기의 전남 건축사회장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목포에서 한 분, 여수에서 한 분이 출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장임기가 2년에서 3년으로 바뀌었기에 회원들께서도 전남 건축의 미래를 위해 신중히 선택하셔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되시더라도 최선을 다하시겠지만, 모든 전남 건축사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각 지역별로 논의 되고 있는 지역별 감리공영제 같은 경우 반드시 한데로 묶어 전남을 비롯한 광주의 모든 건축사들도 참여하여 공동으로 시행하는 근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사로서의 걸어오신 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설계입문, 학업 등)

실무를 시작할때는 건축에 대한 열망보다 직장이라는 개념이 강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광주에 있던 대림 건축사사무소와 광일 건축사사무소 등 여러 건축사사무소를 거치며 조금씩 건축이라는 것에 맛을 알아가기 시작하였을 때 즈음 IMF를 겪으며 다니던 건축사사무소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 때 오기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 후 몇 번의 시험

을 거친 끝에 2003년 1월 건축사 면허를 취득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건축사님께서 확립하신 건축철학을 묻고자 합니다.

건축사로서의 큰 철학을 논하기에는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다고 봅니다. 급변하는 건축의 흐름에 따라 지식도 습득하고 실력도 연마해야 하지만 여건상 많은 어려움을 느낍니다. 다수의 영세한 건축사들과 마찬가지로 '먹고 살기 위한 건축'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철학을 논할 수 있는 날이 오리라는 희망은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건축사 활동하시면서 자랑스러울 때와 부끄러울 때가 있었다면?

자랑스러웠던 적은 딱히 생각나지 않습니다. 제가 설계한 건축물을 바라보며 보람을 느끼는 정도일 뿐입니다. 건축사 자격을 취득했을 때는 스스로 대견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이상의 희열을 아직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점이 가장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덩핑을 통해 일을 가로채거나 빼앗는 건축사를 보면 부끄럽다 못해 한심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가장 존경하는 건축사가 있다면 그리고 그 이유는?

건축이라는 분야에 철학을 가지고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세상의 모든 건축사들이 존경스럽습니다. 실무수련부터 시작하여 오랜 과정을 거쳐 건축사가 되기까지 힘든 과정을 극복해냈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작품 활동을 하시면서 있었던 잊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다면?

요즘에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어서 그런지 연필로 도면을 그렸던 수련과정이 자주 생각납니다. 출근 하자마자 수십 자루의 연필을 깎았던 일, 잘못 깎았다고 선배들이 심을 부러트려 버리면 눈물을 삼키며 다시 깎았던 일, 삼각스케일로 맞아가며 일을 배웠던 그 시절이 지금은 돌아갈 수 없는 추억이 되버렸습니다.

끝으로 선후배 건축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주위에 건축사님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보며 예전보다 경제사정이 너무나 어렵다고 이야기들 하십니다. 서로들 어렵다보니 덩핑수주를 하는 건축사들이 넘쳐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조직을 통한 단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무안지역 건축사회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건축사들이 이해와 슬기를 모을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정리 : 광속국 전담기자 gjkira@empas.com

정정진 건축사가 설계한 대표작품들



광양동초 다목적강당



남해원 전경사진



무안노인병원



북구 생동동 한울복지



해제면 김씨 단독주택

[2015 광주건축사회 건축사실무교육 계획 공지]

건축사법 제30조의2, 영 제30조 규정에 의거 광주건축사회 2015년도 건축사실무교육 계획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교육 신청 기간에 교육을 신청하여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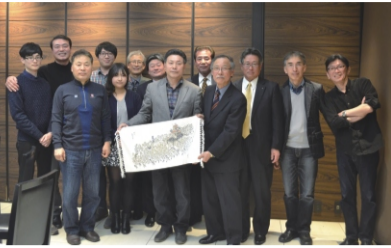
월	일시	종류	과목	강사	장소	교육시간	교육비
4월	28일(화) 14:00~18:00	전문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조병섭 건축사 (서울)	5층 대강당	4시간	60,000원
5월	26일(화) 14:00~16:00		Passive 설계디자인기법	신재익 교수 (울산대)		2시간	30,000원
	26일(화) 16:00~18:00		건축공사 감리실무	조병섭 건축사 (서울)		2시간	30,000원
6월	30일(화) 14:00~18:00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조병섭 건축사 (서울)		4시간	60,000원
7월	28일(화) 14:00~16:00		Passive 설계디자인기법	신재익 교수 (울산대)		2시간	30,000원
	28일(화) 16:00~18:00		건축공사 감리실무	조병섭 건축사 (서울)		2시간	30,000원

- 교육신청기간
해당 교육일 3주 전부터 신청가능
- 출석인정
①매 과목 교육 시작 후 14분까지 입실 완료하여 교육이 인정되며 15분 부터는 지각 처리되어 교육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교육비 환불되지 않음)
②매 과목 교육 종료 후에는 반드시 강의평가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출석체크
①건축사등록원 등록카드 또는 QR코드(교육원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에서 발급)를 이용하여

- 교육장 입구에 비치된 바코드 스캐너로 스캔하여 출석을 체크하여야 합니다.
- 수강신청 절차
①건축사교육원 홈페이지(www.kiraeb.or.kr) 접속
②협회 ID / PW 로 로그인
③교육과정안내, 실무교육 선택 => "건축사회선택" 에서 "광주건축사회"
(선택 => 교육일자 확인 후 각 과목명 클릭)
※광주건축사회 선택 후 "신청중" 클릭 후 선택 신청도 가능
- 기타문의사항은 광주건축사회(062-521-0025~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건축사회, 건축전공 우수학생 양성을 위한 국제행사 참가지원

— 지난 3월 6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진행된 'JIA 디자인리뷰' 참가 학생들에 경비 지원해



광주건축사회 안길전 회장과 신정철 국제위원장 및 남승진 동아인재대 교수, 광주대·전남대·조선대 건축전공 우수학생 등 총 6인으로 구성된 국제교류단이 지난 3월 6일부터 8일까지 일본 후쿠오카에서 진행된 'JIA 디자인리뷰'에 참가했다.

국제결연단체인 일본 JIA 후쿠오카회와의 상호 교류증진을 위한 이번 방문에는 특별히

광주지역의 건축전공 대학생들도 동행했는데, 이는 광주건축사회에서 학생들에게 일본 건축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참가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이번에 20번째로 개최되는 일본 'JIA 디자인리뷰'는 전국 각지의 대학, 대학원, 고등전문학교 등에서 건축을 배우는 학생들의 의욕적 작품을 강평하고, 현대 건축이나 도시 환경을 둘러싼 여러 문제를 논의하여 디자인의 가능성과 리얼리티에 대해 넓게 의견을 교환하는 장소를 제공하는 활동공간이다.

이 기획을 통해서 각지의 대학을 시작으로 건축 교육의 현장, 공공이나 민간의 건축관계자 및 건축·도시에 관심이 있는 다방면의 사람들을 묶어 건축 비평 전체의 질이 향상하는 것을 기대하고, 현대의 건축·도시 디자인에 대해서 자극이 되는 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학생들의 특별한 봉사활동

— 교수, 학생들 등 30여명으로 구성된 봉사단, 라오스 빈민가에 초등학교 건축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학생을 중심으로 구성된 신 한류창의인재양성사업단 해외봉사팀이 라오스 빈민가에 초등학교를 지어주는 특별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지난 1월 말경 전북대 건축공학과 남해경 교수를 비롯해 30여명의 교수, 학생 등으로 구성된 봉사단은 라오스 산골마을인 호아이 반카야 마을을 찾았다.

이 마을 어린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는 흙바닥 위에 대나무 가지를 잘라 벽을 만들고 상수도는 물론, 화장실도 없으며 올 초 전기가 처음 이 마을에 들어올 정도로 매우 열악한 시설을 갖췄었다.

이에 봉사단은 먼저 자체적으로 준비해 간 건축 재료비 1000만원으로 시멘트, 벽돌, 철근 등 건축자재를 구입하고 마을 주민들과 함께 시멘트를 비벼 골조를 세운 다음, 벽돌로 벽체공사를 하고 지붕공사를 했다.

한편 남해경 교수는 "이번에 교실 4칸을 지어주고 왔는데, 현재 교무실과 유치원, 화장실이 부족한 상황"으로 "지금부터 방법을 찾아 내년 봉사활동 때 나머지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학생기고

김대윤 학생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전남 순천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

3월 1일, 학교 개강 전에 순천시 원도심에 위치한 순천지하상가를 들렸다. 지금은 '순천씨내몰(Suncheon SSinae Mall)'이라는 새로운 명칭의 현대적 쇼핑몰로 재탄생 한 곳이다.

순천에 백화점이 없었던 1990년대 개장 당시에는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을 공급함으로써 순천의 중심 상권으로 자리를 잡았으나, 백화점의 입점과 지상 상가에 유명 브랜드 상품을 주력으론 점포들이 입점을 하게 되면서 점점 지하상가의 발길이 뜸해져갔다.

어둡고 침침한 계단을 통해 출입을 해야 하는 이미지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이 고질적인 문제점이었고, 지하상가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였다. 그래서 지자체 등에서도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었다.

지하상가 내의 광장공간에서 각종 공연과 전시를 열기도 했고, 지하상가 내로 소비자를 유입시키기 위해 지상의 횡단보도를 제한하기도 했다. 그러나 시설의 노후화와 경기침체 및 임차문제 등의 이유로 순천지하상가는 설자리를 점점 잃어가게 되었고, 결국 점포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하더니 폐쇄되고 말았다. 이에 순천시 주도하에 리모델링이 추진되었다.

구조체를 제외한 실내 전체를 리모델링 하였고,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설치와 LED 조명 설치 등 이용편이나 에너지 효율 부분이 강화되었다. 천정과 바닥재를 교체하여 현대적인 쇼핑몰 이미지를 구현하고자 했고, 기존의 점포수를 축소하여 심플한 느낌과 간결한 동선을 도모하고자 했으며, 전시장과 소극장 그리고 예술인 창작스튜디오 등 문화예술공간 확충에 비중을 두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렇게 '순천씨내몰'은 새롭게 단장 되었다.

신도심으로 인구가 몰리면서 원도심의 발전이 더뎠다. 도시의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 그리하여 여러 활성화 계획안이 수립되었었으며, 현재에도 '원도심 빈건물 활용 문화 예술 창작공간 확충'이라는 사업이 진행 중이다.

그러한 사업들이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지역민들의 문화수준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촉매제가 되리라 기대한다. 더불어 한정된 대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생성된 지하상가를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갑질과 진정성

갇은 자의 횡포를 통칭하는 '갑질'에 대한 논란과 사회적 공분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갑(甲)에게 억눌려 왔던 을(乙)의 목소리에 사회가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긍정적이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숙청 김영란법)'도 그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와 무관치는 않으리라 생각된다. 반면에, 유행에 편승하여 무차별적으로 쏟아지는 갑질논란과 마녀사냥식의 과도한 흥분에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자칫 갑의 진정성이 훼손되거나, 오히려 을의 목소리를 공허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은 자체와 질제 및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시기라 본다. 부당한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와 을의 권위를 정당하게 인정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온갖 인간관계를 왜곡하여 갑을관계에 짜 맞추는 우이다. 본디 갑을관계는 계약당사자를 지칭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으며, 수평적 관계였다. 그런데 변질과정을 거치면서 각종 이해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자는 갑(甲), 그렇지 못한 자는 을(乙)로 인식되었다. 그리고 상하관계, 주종관계, 강자와 약자, 많이 갇은 자와 덜 갇은 자 등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까지 확대되었다. 따라서 물질적 이해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마저 갑을관계로 규정해 버리는 것은 마땅치 않다.

또 하나, 진정성과 갑질은 분명히 구분되어 한다는 점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진정성은 책무를 다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진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갑의 진정성이 지탄의 대상으로 매도 돼서는 곤란하다. 또한 책무를 다하지도 못한 채로 갑질을 비난하는 을은, 그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건축사는 누구와 어떠한 갑을관계를 맺고 있으며 어떠한 위치일까? 이상적으로 본다면, 건축사는 갑을관계에서 자유로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관계가 수평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작게는 건축주의 사유자산이지만, 크게는 시민과 국민의 공유물이 곧 건축이기 때문이다. 즉, 건축사에게는 공인으로서의 책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더라도 건축분야에서 갑을관계가 형성된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다보니 건축사도 예외 없이 갑을관계에 휩쓸리는 경우가 많다. 사리사욕을 위해 스스로 을을 자처하는 건축사도 있지만, 대부분 강압과 관행에 의해 부당한 갑질을 묵인하거나 감내해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때로는 사회적 책무를 망각하고 갑질을 자행하는 건축사도 있다.

안타까운 것은, 갑질로 인해 진정성이 매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소신과 철학을 갖고 건축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있는 건축사들의 설자리가 좁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바람이 있다면, 것처럼 진정성 있는 건축사들이 존중받는 사회, 그들의 진정성이 갑질로 오인되지 않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편집인_서재형 건축사(archiseo@nate.com)

건축사 만평

오래된 기묘한 사이를 뚫고 예쁜 민들레꽃이 고개를 내민다.
그 꽃향기로 인해 아름다운 벌과 나비가 날아든다. 건축사는 다른이에게 행복과 꿈을 주는 직업이다.
올해 피어난 민들레 꽃향기처럼 우리가 세상에 희망의 향기를 주었으면 좋겠다. 다름보다는 행복이....



심상봉 건축사 작 (주)건축사사무소 에디그림

〈건축문화사랑 2015년도 편집위원 공개모집〉

모집구분 : 건축사 편집위원

모집인원 : 광주지역 3인, 전남지역 2인, 전북지역 2인

모집기간 : 2015. 2. 23 ~ 3. 31 까지

지원자격 : 해당 지역 건축사 회원 누구나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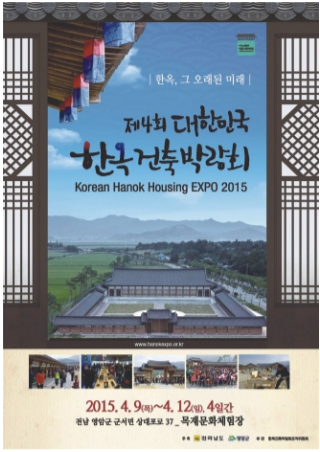
지원방법 : 이력서 첨부하여 이메일(gjkira@empas.com)로 제출

문의 : T.062-521-0025~6

담당자 : 박승국 전담기자

제4회 대한민국 한옥건축박람회, 4월 9일 전남 영암서 개막

— ‘한옥, 그 오래된 미래’라는 주제로 4월 12일까지 진행



수천 년 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 해온 한옥의 우수성을 알리고 미래 한옥의 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4회 대한민국 한옥건축박람회’가 오는 4월 9일 전남 영암군 목재문화체험장에서 진행된다.

4일간 ‘한옥, 그 오래된 미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한옥 하우스마켓, 전국한옥기능경기대회, 한옥 사진촬영대회를 비롯해 한옥 짓기체험과 한옥 구들짓기체험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박람회 기간 동안 학술행사로 명사초청특강 ‘토콘서트-일상에도 쉽표가 필요하다. 힐링, 소통’이 열리며, 한옥기능경기대회, 한옥 팸투어, 캐리커처 라이브쇼, 신한옥 체험관, 남도 특산품 전시, 남도 음식 한마당, 한옥카페 등 부대행사도 있을 예정이다. 한편, 제4회 대한민국 한옥건축박람회 추진위원장은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천득염 교수가 맡고 있다.

이날 취임식에는 김광우 대한건축학회 회장, 한종률 한국건축가협회 회장, 제해성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소장, 이상정 한국건축정책학회 회장, 박경립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정책조정위원장, 권영숙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등 대내외 인사 300여명이 참석해 조총기 신임회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대한건축사협회 제31대 조총기회장 취임

— 3월 5일 “국민이 행복한 건축, 건축사 회원이 행복한 건축 선도” 강조



대한건축사협회 제31대 회장에 선출된 조총기 건축사(건축사사무소 간향)가 지난 3월 5일 대한건축사협회 1층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적인 회장 업무에 돌입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김광우 대한건축학회 회장, 한종률 한국건축가협회 회장, 제해성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소장, 이상정 한국건축정책학회 회장, 박경립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정책조정위원장, 권영숙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등 대내외 인사 300여명이 참석해 조총기 신임회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조총기 회장은 취임사에서 “건축 R&D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며 “10조 설계시장, 1인 평균 5억 수주, 회비와 교육비의 제로화, 곧 ‘Ten-Five-Zero’는 우리의 비전이며 최소한의 목표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이 행복한 건축, 건축사 회원이 행복한 건축을 선도하며 회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장의 변화 그리고 회원의 협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총기 신임 회장의 임기는 2018년 2월까지 3년간이며, 주력사업으로는 ‘감리제도 개선 등 건축제도 개선’, ‘R&D 투자 확대’, ‘대국민 홍보강화’ 등이다.

대한건축사협회 신임 감사에 장양순 건축사(건축사사무소 창건축) 선출

— 지난 2월 27일 열린 대한건축사협회 제49회 정기총회에서 당선, 3월 5일 취임



대한건축사협회 2015년도 감사선거에서 장양순 건축사(건축사사무소 창건축)가 김득수 건축사(종합건축사사무소 S.S.P. 삼대)를 누르고 당선됐다.

지난 2월 27일 대한건축사협회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49회 정기총회에서 참석 대의원의 과반수 표를 얻어 2015년도 감사에 선출되었으며, 지난

3월 5일 동 장소에서 열린 회장 이·취임식에서 신임회장과 함께 취임식을 갖고 2년 임기를 시작했다.

장양순 신임 감사는 1946년 생으로 대전공고와 홍익대, 동 대학원 석사를 졸업했으며 한서대 건축학과 겸임교수, 서울건축사회 이사 및 감사, 서울건축신문 편집주간, 건축문화신문 초대 편집국장, 대한건축사협회 이사 및 홍보편찬위원장, 건축문화대상 시행위원장 및 심사위원을 역임했다.

광주·전남·전북건축사회 정기총회 일정 안내

일 자	건축사회	시간	장 소
3/13(금)	광 주	10:00	신양파크호텔 1층 그랜드볼룸 (광주 동구 지호로 214-7)
3/16(월)	전 남	13:30	에코그라드 관광호텔 (전남 순천시 조례동 1587-4)
3/19(목)	전 북	15:30	오펠리스 (전북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3)

알림마당

- 전라북도건축사회(전주 지역 회원 대상) -전주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건축사 신청 안내**
2015년 4월부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를 신규로 신청 받아 전주시에 제출하고자 하오니 3월 20일 (금)까지 기일 엄수하시어 사무국으로 신청(팩스 063-251-6048)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탈퇴하고자 하는 건축사는 탈퇴서 제출/기존 대행자중 2015년에도 업무를 계속할 건축사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광주건축사회(광주 지역 회원 대상)-2015 대한건축사협회 정회원회비 선납 안내**
대한건축사협회 월정회비를 3월 말까지 1년분을 선납하실 경우 2개월 회비 감면의 혜택이 있사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월정회비 미수금이 있을 경우에는 완납하여야 선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구 분	납부방법 및 금액 (선납 경우 감면액 차감금액)	감면혜택	납 부 기 한
1년분 선납	일시납(년/300,000원)	2개월분 감면	당해 연도 3월 이전 가능
6개월분 선납	일시납(해당기간/150,000원)	1개월분 감면	당해 연도 7월 이전 가능

※2014년도 본협회 월정회비 : 30,000원/월

- 가. 선납가능기한 : 2015. 4. 8 (수)
 나. 납부금액 : 1월~12월 (30,000원×12개월) = 360,000원
 ☞ 360,000원 → 2개월 감면(60,000원) ⇒ 300,000원/년
 다. 계좌번호 : 신용협동조합 131-004-419250 광주건축사회
 ☞ 입금시 건축사명의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광주건축사회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에 동참하고 있는 회원은 자동 납입되오니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됨.

법무법인 서석

광주건축사회 고문변호사 윤 춘 주
법무법인 서석 변호사

새로운 일을 추진할 때와 문서에 서명하기 전에 변호사와의 전화 한 통화로 많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취급업무 •
- 공증, 특허, 상표, 건설, 의료, 행정, 파산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5-2 법조타운 206호
 전화 : 062-226-7400 팩스 : 062-225-5310
 홈페이지 : nicelawyer.co.kr / 윤변호사.com

이은주 세무사무소

광주건축사회 세무 관련 자문위원 이은주
이은주 세무사무소 대표

저희 사무실은 법인과 개인기업의 세무관련 서비스 및 경영컨설팅 제공, 조세에 대한 신고, 신청 등 불복대행 양도, 상속 등 재산세제의 상담, 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등기청 및 복구청 지방세 심의위원
 현)복구청 부동산 평가위원회 위원
 현)광주지방 국세청 심의위원

광주광역시 서구 월드컵4가로 94 / 4층 (서광주세무서 앞)
 전 화 : 062-383-0002 팩스 : 062-383-1181
 휴대폰 : 010-3256-9759
 e-mail : eunjootax@hanmail.net

2015 한국건축문화대상 작품공모

준공부문 6월 5일까지, 계획부문 5월 26일부터 5월 29까지 인터넷 접수

우리나라 건축문화 발전과 건축인의 창작의욕을 높이고 신인등용의 장으로서 한국 건축의 정통성과 맥을 이어가고 있는 ‘2015한국건축문화대상’ 작품공모가 시작됐다. 작품공모에 대한 공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응모부문 및 대상**
- 준공건축물부문
 - 응모작품 : 2013년 5월 1일부터 2015년 5월 1일 사이에 국내에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로 한국건축문화대상에 기출품한 사실이 없는 작품 (임시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은 응모불가)
 - 응모자격 : 출품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명시된 대표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 각 1인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대표 설계자·시공자·건축주 각 1인에 한해 시상
 - 계획건축물부문
 - 응모작품 : 제시된 주제를 적용한 미발표 창작 작품
 - 응모자격 : 건축, 도시에 관심 있는 내·외국인
- 응모방법**
- 준공건축물부문
 - 인터넷 참가신청 ⇒ 1차 심사 제출내용 접수(방문 및 우편접수)
 - 1차 사진첨 심사를 통과한 작품에 한해 2차 현장심사 실시
 - 계획건축물부문
 - 작품주제 : “Rejuvenation with a slight gesture” 해학적 창조를 통한 회복
 - 인터넷 참가신청 ⇒ 1차 심사 제출내용 접수(방문 및 우편접수)
 - 1차 작품계획안심사를 통과한 작품에 한해 2차, 3차 심사 실시
 - 1팀 3인 이내, 1인당 1작품 참여로 제한

- 작품접수**
- 준공건축물부문
 - 참가신청(인터넷 신청) : 2015. 6. 5(금)까지 09:00~18:00 ☞ kaa.kira.or.kr
 - 1차 심사 제출내용 접수 : 2015. 6. 8(월) ~ 6. 9(화) 09:00~18:00 시간업무
 - ☞ 방문 및 우편접수(우송일 경우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17(서초동) 대한건축사협회 1층 대강당
 - 계획건축물부문
 - 참가신청(인터넷 신청) : 2015. 5. 26(화) ~ 5. 29(금)
 - ☞ kaa.kira.or.kr
 - 1차 작품접수 : 2015. 6. 2(화) ~ 6. 3(수) 09:00 ~ 18:00 시간업무
 - ☞ 방문 및 우편접수(우송일 경우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2차 작품접수 : 2015. 7. 14(화) 09:00~18:00 방문접수
 - ☞ 3차 작품설명 프리젠테이션 심사는 추후 공지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17(서초동) 대한건축사협회 1층 대강당
 ※세부적인 사항은 한국건축문화대상 홈페이지(http://kaa.kira.or.kr)를 참고하기 바란다.

광주건축사회, 신입회원 및 2014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자와의 간담회 가져

— 지난 3월 2일 광주건축사회관에서 진행, 협회 및 신협 업무 등 소개



광주건축사회(회장 안길전)는 지난 3월 2일 광주건축사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건축사회 관련 업무홍보 및 이해 관계 증진과 신입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위해 '신입회원 및 2014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10여명의 신입회원 및 2014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자와 광주건축사회 및 건축사시험 임원, 공사감리협의회 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안길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이 자리는 광주건축사회의 미래를 책임지고 광주시의 건축문화를 짊어지고 나아가실 분들을 만나게 된 자리이다”며 “신입 건축사들이 선배 건축사들과 화합하고 소통하여 진일보하는 광주건축사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광주건축사회와 광주건축사시험, 건축공사감리협의회, 건축문화사랑 신문에 대한 업무를 소개하고 다과를 가진 후, 기념 촬영을 끝으로 마무리 지었다.

NEWS 광주건축사회 동정

- * 입회**
 - 김은자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아도 광주 서구 풍곡로11번길 4-11, 2층(풍암동)
 - 김정훈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삼인 광주 서구 동천동 627번지 601호
 - 양관식 건축사 / (주)공유 건축사사무소 광주 동구 학동길 5, 4층(학동)
- * 변경(상호/소재지)**
 - 박창수 건축사 / 연우 건축사사무소 광주 임방울대로 926번길 60-20(월계동)
- * 변경(소재지)**
 - 이형규 건축사 / 대안 건축사사무소 광주 서구 풍곡로11번길 4-11, 2층(풍암동)
 - 강성진 건축사 / 무진 건축사사무소 광주 서구 풍곡로11번길 4-11, 2층(풍암동)
 - 정규영 건축사 / 예가 건축사사무소 광주 서구 풍곡로11번길 4-11, 2층(풍암동)
 - 최 윤 건축사 / 에스포유 건축사사무소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72번길 5-2, 3층(치평동)
 - 고재학 건축사 / 예가 건축사사무소 광주 북구 용봉택지로 52-2, 2층(용봉동)

NEWS 전북건축사회 동정

- * 입회**
 - 문명길 건축사 / 온 건축사사무소 전북 익산시 부송로1길 4, KT빌딩6층(부송동)
 - 이득영 건축사 / (주)목양종합 건축사사무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추탄로 38, 3층(덕진동2가)
- * 변경(소재지)**
 - 장종일 건축사 / 부일 건축사사무소 전북 남원시 시청로 61(향교동)
- * 부고**
 - 김병수 건축사 건축사 / 강천 건축사사무소 부친상 - 2월 9일 (월)
 - 이영철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세원건축 방부상 - 2월 16일 (월)
 - 추원호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신세대그룹 모친상 - 2월 28일 (토)

NEWS 전남건축사회 동정

- * 입회**
 - 박재봉 건축사/하늘 건축사사무소 전남 목포시 정의로 14-0
 - 오덕영 건축사/건축사사무소 이오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1길 17(306호)
- * 변경**
 - 이동명 건축사/명진 건축사사무소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5, 2층
- * 결혼**
 - 김강수 건축사/(주)연우 건축사사무소 장남결혼 3월 7일

NEWS 광주·전남·전북 3·4월 지역축제

- ▶03. 14 (토) ~ 03. 22 (일) 제18회 광양매화축제 - 전남 광양시, 섬진마을
- ▶03. 20 (금) ~ 03. 23 (월) 제37회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 전남 진도군, 신비의 바닷길
- ▶03. 27 (금) ~ 04. 05 (일) 2015 광주봄꽃박람회 - 광주 서구,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
- ▶04. 04 (토) ~ 04. 05 (일) 목포 유달산 꽃축제 - 전남 목포시, 유달산 일원 및 로데오광장
- ▶04. 08 (수) ~ 04. 12 (일) 2015 대한민국 한옥건축박람회 - 전남 영암군, 왕인박사탄생지 앞 한옥건축박람회장
- ▶04. 09 (목) ~ 04. 12 (일) 2015 광주경향하우징페어 - 광주 서구,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
- ▶04. 10 (금) ~ 04. 12 (일) 제8회 김제 모악산 축제 - 전북 김제시, 모악산

※ 건축허가관련 양식 기재란 주소는 반드시 도로명 주소를 사용합시다. 건축사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250호/의견제출 2015년 3월 19일까지]

- 1. 개정이유**
 - 분양신고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을 공동주택과 같이 안목치수를 적용 하도록 제도 도입 ('14.12,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을 시행령 개정)
 - * 30실이상으로서 사용승인 전 분양하는 오피스텔
 - 이에 비해 분양미신고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중심선 치수를 적용하고 있는 등 명확한 기준이 없어 수요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음
 - * 오피스텔 전용면적이 적용되는 사례
 - 85㎡이하 기준 : 매입임대주택, 바닥난방 가능면적, 중개보수요율(저요율)
 - 주차장 면적산정(아파트와 같이 안목치수 적용 규정) 등
 - 분양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을 동일하게 적용(안목치수) 및 명확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기준 개정 필요
- 2. 주요내용**
 - 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하고,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바닥면적에서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은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함.(제2조 제4호 신설)
-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2015년 3월 1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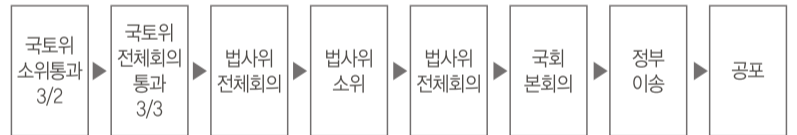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http://www.moleg.go.kr) 또는 대한건축사협회(http://www.kira.or.kr) 법령정보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선제한 폐지”, 국토위 법안심사소위(3.2), 전체회의(3.3) 통과

[법사위와 본회의 절차만 남겨두고 있음(4월 임시국회 예정)]

- 지난 10월 22일 강석호 의원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된 “건축물 높이 제한 폐지” 개정내용[사선제한 폐지, 안 제60조제3항 삭제]이 3월 2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3월 3일 전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또한 같은 법안으로 검토하였던 표준계약서는 폐지하지 않고 현행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협회의 존치 의견 반영됨)
- 통과된 건축법 개정안은 법사위원회를 거쳐 4월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진행경과
 - 2014.10.2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의원 대표발의) 제안
 - 11.26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상정→논의되지 않고 정회
 - 12.22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소위 회부
 - 12.23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논의되지 않음(부동산3법만 통과됨)
 - 2015.03.02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통과
 - 03.03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상정→통과

○ 추후일정(예상)



○ 강석호 의원 건축법 개정 발의(안) 주요내용

- 가. 건축위원회 등 위원회의 통합심의 규정(안 제4조의9 신설)
- 나. 건축물의 입지와 규모에 대한 사전결정 신청 내용 추가(안 제10조제1항 개정)
- 다. 건축허가 신청서류 조정(안 제11조제3항 개정)
- 라. 건축허가를 하는 때 한국건축규정 준수여부 확인(안 제11조제4항 개정)
- 마. 건축관계자 간 설계 등 업무 계약서 활용하도록 하는 표준계약서 폐지 (안 제15조제3항 삭제)→존치
- 바. 건축허가표지판 설치 규정 폐지(안 제24조제5항 삭제)
- 사. 조경기준 고시 폐지(안 제42조제2항 삭제)
- 아. 건축물의 높이 제한 폐지(안 제60조제3항 삭제)
- 자. 온돌 및 난방설비 기준 폐지(안 제63조 삭제)
- 차. 건축협정의 폐지 제한(안 제77조의9제1항단서 신설)
- 카.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추가(안 제77조의13제3항 개정)

광고 및
공독신청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 16면 전면광고 : 1,000,000원
- 16면외전면광고 : 700,000원
- 하 단 광 고 : 350,000원
- 하단1/2광고 : 200,000원
- 구 독 료 : 20,000원/1년
- 구독료입금계좌 예 금 주 : 광주건축사회
- 계좌번호 : 신협 131-009-471898

건축문화사랑 신문

T. 062) 521-0025~6 F. 062) 528-0026

건축문화 사랑

2009년 11월 10일 창간

- 발행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 발행인** 안길전, 국원식, 김남중
- 담당임원** 정명철
- 창간발행인** 신정철, 김강수, 이성엽
- 역대발행인** 심상봉
- 초대편집인** 박홍근
- 편집인** 서재형
- 전담기자** 광승국
- 논설위원** 이순미, 신영은, 정영범
- 편집위원** 박신남, 정명환, 정관성, 강동영, 김미영, 이광영, 백재봉, 윤미순, 박종호, 양우현, 박주현
- 등록번호** 광주광역시 라00144
- 간 별** 월간
- 등록일자** 2010-01-25
- 인쇄·제작** 원일인쇄 T.062)228-7813
- 광고신청** T.062)521-0025



표 | 지 | 설 | 명

2015년 새로운 선택!

2015년 전남건축사회원들의 선택은 오는 3월 10일 전남순천에서 열리는 전라남도 건축사회정기총회에서 3년 임기의 새로운 회장이 선출된다. 전남건축사 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건축문화 사랑

신문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

- ▶ 발전기금 : 1만원부터
- ▶ 후원방식 : 신협 131-009-471898 (예금주 : 광주건축사회)

- 박재홍 (주)홍 건축사사무소 300,000원
- 반석기초이앤씨(주) 350,000원
- 마이다스아이티 300,000원
- 박민철 디지털HP 200,000원
- 윤준주 법무법인 서석 100,000원
- 이은주 이은주 세무사무소 100,000원

건축문화 사랑 원고모집

건축문화사랑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독자사진/지역소식/동호회소식/책/수필/수필/작품노트/건축작품/독자만평/기타(기행문, 시, 문학작품, 미담, 학위 취득, 교수 임용, 인사이동 등 회원동정)

원고마감 : 매달 25일
문 의 : 광주건축사회 (Tel : 062-521-0025)
E-mail : gkira@empal.com

1. 건축작품 및 기타를 제외한 모든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2. 원고에는 작가의 사진과 사무소명, 직책 및 약력을 첨부.
3. 원고는 아래 한글, 명조체, 10포인트로 작성, 사진은 디지털파일로 제출.

이해와 소통 그리고 화합

태어날 적부터 대학을 졸업하기까지 오직 광주에서만 생활해왔던 나는 현재 자리 잡은 이곳(여천)에 오기 전까지 우물 안의 개구리 마냥 제한적 활동 범위의 사람들만을 만났다.

대학에서도 그리고 군대에 가서도(필자는 군복무 대신 산업체에서 근무하였다) 거의 마음에 맞은 고등학교 때의 친구들에게 둘러싸였고, 광주 지역을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 타 지역 문화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그리고 교감을 갖지 못하였다.

그런데 현재 근무하는 이곳 여천은 지리적 여건과 산업화의 여파로 대한민국 방방곡곡의 사람들이 다양한 사투리를 섞어가며 공동생활을 하고 있어 다문화 생활권이라고 볼 수 있다. 같은 나라의 사람들이 별 차이가 있겠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역에 따라 먹는 것 입는 것 생각하는 것 그리고 말하는 것까지 조금씩 달라 약간의 생소함과 이질감이 생길 수 밖에 없었다.

지금은 5년 가까이 이곳에서 생활하다보니 그들을 이해하고 서로 동화된 상태에 이르렀다. 나 자신도 모르게 입에서 나오는 경상도 사투리도 전라도 사투리도 아닌 말투에 놀랄 따름이다. 시간과 주변 환경이라는 효과 좋은 약 앞에 나 스스로도 타지역 문화에 대한 이해력이 커졌고 지역적 차별이 조금씩 없어지는 듯 하다.

그런 경험이 있었던 탓일까? 요즘 우리나라의 정세를 보면 좌와 우로, 경상도와 전라도로, 남자와 여자 등으로 자주 갈리며 서로간의 입장만을 내세우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다.

인터넷 그리고 각종 신문과 방송에서도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해 편을 나누고 분열을 조장하는 것 같아 개탄스럽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한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 부끄러울 뿐이다.

공중파 모 방송에서 조선시대 임진왜란 전후와 당시의 상황을 잘 묘사한 대하사극 '징비록'이 방송되고 있다. 고관 대신들이 서로의 입장을 내세우며 당쟁을 일삼고 있는 조선 정부와 그로인해 고뇌하는 선조의 입장을 엿볼 수 있는데, 결국 그로 인해 큰 피해를 입는 건 백성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에드워드 카는 '역사는 무엇인가'라는 책을 통해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 없는 대화'라고 말했다. 과거의 과오를 돌이켜 보며 현재의 잘못된 점을 찾아내고 반성하여 발전성을 가져야 한다는 큰 의미이다.

현 시대에 임진왜란 같은 사건들이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 결국에 그 고통은 우리 자신들에게 돌아오게 되는 일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자신만의 입장을 내세울 게 아니라 타인을 이해하고 소통하며 화합하는 그러한 대한민국을 희망해 본다.

미완성

아침 운동 길마다
산에 올라
멀리 보이는 도심을 내려다 본다

희뿌연 하늘아래
희뿌연 세상이다

“네 몸 건강하고
네 식구들 건강하니 감사하고 살아
속상하는 일 있어도
그냥 참고 살아
남의 속 뒤집어 놓은 사람도
편한 잠자는 것은 아닌 것임께”
어머님의 목소리도 흐릿하기만 하다

아침이면 또렷하던 것이
저녁이면 흐릿해져 뒤섞이고
내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듯 알 듯
모르고 사는 것이
그만 그만이어서 다행이다

정상민 건축사
진 건축사사무소(익산)

책 소개

「아빠와 함께하는 하루10분 생활놀이」

글 : 권오진, 탁경운 / 그림 : 권규리 / 경향BP / 2012.08.24



나에겐 올해 두 살배기와 네 살이 되는 두 사내아이가 있다.

어린이집 교사인 아내는 꾸준히 어린 두 아이들을 잘 보살펴주고 즐겁게 놀아주는 반면, 나는 익숙하지 않아 잘 보살펴주지도 놀아주지도 못했다.

모든 가정의 가장들처럼 늦게까지 공부했던 시간과 야근으로 인한 늦은 귀가 탓에 정작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적었다. 어쩌면 아이들과 함께 놀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모르는 것이 당연했다.

첫째가 태어나고, 조금 자랐을 때 아내가 권한 책이 「아빠와 함께하는 하루 10분 생활놀이」 라는 책이었다. 책의 내용은 말 그대로 하루 10분, 아빠와 함께 거실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생활 속 놀이를 소개하는 것이었다.

책을 통해 그동안 잘 돌보지 못했던 아이들을 위해 하루 10분~20분 정도 몸으로 열심히 놀아주는 방법을 익혀나갔다.

그 덕에 아이들과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아빠를 좋아하며 따르게 된 것이다. 그런 변화된 모습이 뿌듯하고 흐뭇하다. 많은 아빠들이 아이와 가까워지지 못하는 것은 시작을 못해서가 아니라 '잘 놀아 줄 수 없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다.

아이와 함께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일상생활 속에서 사소한 것부터 실행에 옮기면 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으며, 또한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말 타기 놀이나 다리 터널놀이 등도 있지만,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들이(종이컵,

풍선, 줄넘기, 신문지, 페트병) 아이의 성장발달에 좋은 놀이의 소재가 될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게 하는 책이다.

'놀이는 최고의 교육이다'라는 말처럼 바쁜 생활 속에서 조금만 시간을 내어 내 아이와 즐겁게 10분만 놀아줘보는 것을 어떨까? 아마 빵점 아빠에서 백점 아빠로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놀이를 통한 나의 작은 변화가 내 두 아이들을 행복하게 하고, 아내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해주었다.

어린 아이와 노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초보 아빠분들께 꼭 읽어보길 추천해본다.

신축, 증축과 개축, 보수 작업을 전문으로 만족하실 수 있는 책임시공을 약속드립니다.

지붕 개량 전문업체 공장직영 운영 시공/판매

슬래브 주택, 옥상지붕 건축, 징크 자재전문(기계 임대)
교회, 절, 전원주택, 가든, 공장, 창고 등 어디나 알맞은 용도에 맞추어 선택!

최고의 자재 와 **숙련된 기술력** **최저의 시공비** 로 품질보장과 함께 고객님의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또한 직접 시공하시는 분들도 모든 자재를 공장도 가격으로 판매하오니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상담해 드립니다.

공장 직영 • 초대형 공장에서 직거래하므로
• 원·부자재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 가격이 확실하게 저렴합니다. **공장 직거래** **주택 개·보수** 현집, 누수, 방수 보수, 지붕 개량 **건축, 내부인테리어 철 구조물** **APT, 주택 리모델링** 베란다 확장 욕실, 도배, 주방 거실 확장, 정판



※ 유사상호 주의

지붕개량 **금속칼라강판**



지붕 공사의 대표 주자
대농산업

▶ 본사 및 공장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서항동 530번지

☎ 062)373-6548, 6549
374-6585



유일한

광주·전남의 점토벽돌 제조회사!

새롭게 출범한 동아세라믹(주)는 지난 1995년 봉황세라믹스(주)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점토벽돌 생산의 기술력과 여러 노하우를 더욱 발전시켜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최고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광주·전남에서 유일한 점토벽돌 제조회사로서 큰 사명감을 가지고, 끊임없는 기술혁신과 차별화된 제품 생산을 통해 고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일류 점토벽돌 제조회사가 되겠습니다.



점토바닥벽돌



점토미장벽돌

* 점토벽돌 시공사례



동아세라믹|주
DONG-A CERAMIC CO.,LTD.

본 사: 전남 나주시 봉황면 봉황농공단지길 134-7(구, 나주시 봉황면 와우리 1-35)
Tel. 061-331-9000-2 Fax. 061-331-9003
서울지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5442-1 크란츠테크노 801호
Tel. 031-737-7890 Fax. 031-777-8325